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 발행인의 데스크



## 태어날때부터 시각장애, 4살 때부터 자폐증

# 한국인 아버지와 흑인혼혈 어머니를 둔 한국계 23세 청년

편집자 주: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스토리는 이미 카카오톡으로 많이 전달되어 잘 알려진 코디 리의 역경을 딛고 우뚝 일어서 23세의 한국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5월에 시작됐던 미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 AGT)에서 우승하면서 화제를 모았던 한국계 코디 리(Kodi Lee)의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AGT는 올해 15번째로 기념식에 '가장 성공한 리얼리티 TV포맷'으로 기록된 NBC TV의 프로그램입니다.

통상 5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우승자를 가리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준준결승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사태로 그 일정이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한해 전, 지난해 5월 예선 때부터 큰 관심과 화제를 불러오면서 결국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코디 리,

한국이름 이태현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시각장애에다 4살 때부터 자폐증까지 보인 코디 리는 이 프로그램 최초의 자폐증 출연자이자 우승자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흑인 혼혈 어머니를 둔 한국계 23살의 청년입니다. 아들 격에 힘든 삶을 살아야했던 코디 리의

어머니 티나 리는 일찍 아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음악으로 아들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이끌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 에릭 리와 동생, 여동생도 사랑으로 뭉쳐 음악으로 가는 코디 리의 길을 밝혀주는 손발이 돼 줍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말도 어



눌한 코디 리는 노래를 통해 어머니와 가족의 사랑과 헌신에 답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래하기 전과 노래할 때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코디 리가 예선전에서 선택한 곡은 'A Song for You'.

당신을 위한 노래입니다. 코디 리를 데리고 나왔던 어머니는 '이젠 너의 시간이야. 20대의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어'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나 지켜봅니다. 그리고 노래를 듣고 입이 벌어졌던 심사위원들 중 한사람인 배우 가브리엘 유니온이 감동적인 멘트와 함께 골든 버즈(Golden Buzzer)로 화답합니다.

다. (<https://m.youtube.com/watch?v=U7QZmhODxrv>)

코디가 불렀던 노래는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레온 러셀(Leon Lussel)의 노래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했고 코디는 그중 Donny Hathway 버전을 선택했습니다.

코디는 골든 버즈 덕분에 36명이 겨루는 준준결승으로 직행합니다. 거기서 부른 노래는 잘 알려진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 노래의 작곡가 폴 사이먼은 코디를 위해 편곡까지 맡아줬습니다. (<https://youtu.be/AIXgLR4wFuU>)

이 노래 내용처럼 코디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험한 자신만의 세계를 바깥세상과 연결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코디는 볼 수도, 읽을 수도 없고 피아노와 음악을 배운 적이 없지만 한번 들은 음악은 즉시 피아노를 치고 부를 수 있는 음악적인 천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졌던 영화 'Rain Man'에 등장했던 더스틴 호프만을 떠올리게 하는 천재성입니다. 그래서 코디는 클래식에서부터 팝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모두 소화합니다. 물론 한국가요도 포함됩니다.

11명이 겨루는 준결승에서 코디는 의미 있는 곡 'You are the Reason', '당신이 바로 그 이유'라는 역시 어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릅니다. 예선에서 코디가 골든 버즈를 받았을 때 배경에 흐르던 곡이기도 합니다.

Britain Got Talent 출신의 가수 칼럼 스콧(Calum Scott)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산을 오르고 모든 바다를 헤엄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https://m.youtube.com/watch?v=2ww0yIpiM2c>)

칼럼 스콧과 이 노래를 듀엣으로 불렀던 영국의 X Factor 우승자 레오나 루이스(Leona Lewis)는 결승전 특별 무대에 등장해 코디 리와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https://youtu.be/g7yqx-8p0zII>)

5팀이 겨루는 결승전에서 코디 리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프레이 라이딩스(Freya Ridings)의 'Lost without You'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신 없이는 길을 잃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노래를 원곡처럼 피아노 반주로만 끝이 가 심사위원들의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

다. (<https://youtu.be/qNW-m2gdXYyW>)

독실가로 유명한 사이먼 코웰은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중 하나라면서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청소년 합창단과 최종 후보로 남았다가 우승이 확정 되는 순간입니다.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Y3Mf53LeKfA>)

100만 달러, 우리 돈 12억을 상금으로 받은 코디 리는 색깔별로 그랜드 피아노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앞을 못 보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동심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코디 리의 11월 라스베이거스 우승공연에는 두 동생이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코디 리를 무대로 인도하고 다독여려 안심하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어머니,

항상 곁에서 함께 격려하는 가족들, 이들은 시각장애와 자폐증을 이기고 인간승리를 이룬 공동의 주역들입니다.



# "나한테 묻지마", 중국한테 물어봐..

## 트럼프: 중국계 미국인 여기자에 막말 논란

며칠 전 미국 TV 방송에 방영된 백악관 출입기자단들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갇힌 인터뷰 뉴스를 지켜 본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다.

트럼프 자신도 소위 말하는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가 아니다. 독일계 후손이다.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네가 낙선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섬을 하나 사서 너를 그 섬의 왕으로 만들어 줄테니까."

아버지는 엄청난 재산가였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대로 아버지는 그 당시 미국 원주민들을 상대로 술 장사를 하여 얼마 어마한 돈을 모았다고 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

는 대중가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부류의 미국 부호들을 보면 공연히 부화가 치며 크게 된다.

트럼프는 독일계 후손으로 아버지가 소위 창녀들을 고용해서 술장사를 하여 돈을 모은 가계이다.

TV 화면에 비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웨이저 장 기자의 태도와 질문 내용은 과연 CBS TV 백악관 출입 기자다운 인상을 풍기는 중국계 미국 여성인 것 같다.

백인들의 머리 속에 깔려 있는 비백인계 이민자에 대한 편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같은 동양인이니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왜 트럼프는 중국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인 장 기자에게 무슨 이유로 중국한테 가서 물어 보라는 대꾸를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TV 방송국의 보도 장면:



[앵커] 모처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 나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와 말다툼 끝에 기자회견을 갑자기 끝내고 나가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브리핑을 지적한 중국계 기자를 겨냥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을 주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 백악관에서 있던 확진자 발생으로 초비상이 걸렸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트럼프대통령] 확산을 잘

▲ 캐틀란 콜린스 CNN 백악관 출입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물어보라'는 말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고 있다.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어지자 중국계 CBS 기자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웨이저장 / CBS 기자: 미국이 검사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것인가요? 매일 미국인이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는데 왜 국제적 경쟁으로 보는 것인가요?]

하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합니다.]

뒤이어 CNN 기자가 질문을 이어가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을 돌연 중단하고 떠났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SNS에서는 웨이저 장 기자를 응원한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거센 비난이 확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태도가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CNN은 장 기자가 중국 출신의 이민 세대로 백악관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살균제 인체 주입' 발언 파문 이후 잠시 자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적잖은 막말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내가 누군가를 록 집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짓곳은 질문을